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에 관한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및 관리자의 인식 조사

구민관*

부산 동천초등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직업교육에 대한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및 학교 관리자 등의 인식을 탐색하고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 같은 탐색을 위해 거점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교실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의 학부모 88명, 특수학급 교사 27명, 학교 관리자 20명에게 총 22개 문항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설문지를 개발하였는데 이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후 평정 척도 문항에 대해서는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 응답 문항의 경우 이분법 코딩을 실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거점학교 설치와 이를 통해 실시된 직업체험교실 운영,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 및 교사, 학부모 및 외부기관 간의 협의체 구축에 대해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및 관리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전환교육,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직업훈련, 거점학교 운영

* 교신저자(phd.goo@gmail.co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10년 간 한국 특수교육에 있어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확대 운영일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수의 추이를 살펴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데 지난 2002년 461명이었던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수는 2011년 2,57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다시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수와 비교하여 보면 더욱 명확히 그 증가의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지난 2002년 1,873명이었던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수는 2012년 2,469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를 특수학급 졸업생 수의 추이와 비교해 보면 그 증가의 정도가 크지는 않으며 2012년에는 오히려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수가 특수학교 졸업생 수 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특수교육에 있어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직업교육 또한 특수교육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민관(2012)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직업생활 영위의 중요성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적 역할의 전환, 즉, 직업생활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자원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Mardman, Drew, & Egan, 2007). 둘째, 삶의 질의 향상, 즉, 직업생활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금전적 소득을 얻게 함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주거 및 교육 기회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 역할을 한다(Blackorby & Wagner, 1996; Drew & hardman, 2007). 셋째, 생활 혹은 사회 기술 습득의 기회 제공, 즉 장애인들은 직업생활이 주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생활 혹은 사회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Carter & Lunsford, 2005). 넷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즉 직업생활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전보성, 2007). 다섯째, 자기실현의 수단, 즉, 장애인들은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적 안정감과 삶의 보람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김정희, 김미경, 2007). 이와 같이 이유에서 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의 영위는 그들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 혹은 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실제적 직업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직업생활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제공 되어지는 보호를 벗어나 경쟁고용 사회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박지웅, 2003), 이 시점에 장애 학생들은 구직에 대한 어려움 또는 구직 이 후 직업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게 된다(이재원, 박병도, 김현중, 2006). 이는 2005년 국립특수교육원(정희섭 외, 2005)의 연구 “특수학교(급) 고등부 졸업생의 진로실태 및 진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통해 확인되어지는데 졸업 후 직장 생활 횟수에 관한 질문에 있어 ‘졸업 후 줄곧 무직자’라고 답한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 중 569명(74.6%)였으며, ‘1회 이상 이직한 경우’라고 답한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 중 194명(25.4%)였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생활 영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특수학교(급) 고등부에서는 수업시수의 상당 부분을 직업교육에 할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장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하였다(조규영, 2011). 이는 구민관(2012)의 특수학교(급) 졸업생 진로 및 취업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지는데 지난 10년 간 상당수의 장애 졸업생들이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전공과목의 진학 혹은 복지관으로 취업을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여전히 직업훈련의 연속선상에 있게 되거나 혹은 비독립적이며 제한적인 고용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부 특수학교(급)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희섭 외 (2005)의 특수학교(급)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42명 특수학급 졸업생 중 22명(15.5%)만이 그들이 특수학급에서 받은 직업관련 교육에 ‘매우 충분하다’ 혹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91명(64.0%)가 ‘조금 부족하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특수학급에서 적절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또 윤덕순, 박재국, 안성우와 신영주(2006)은 전국 62개 학교 89개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실태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직업교육 관련 기자재 확보에 관한 질문에 있어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개 학교(7.9%)에 그친 반면 ‘확보가 필요’라고 응답한 경우는 21개 학교(23.6%)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8개 학교(42.7%)로 59개 학교(66.3%)가 직업교육을 위한 충분한 기자재가 마련되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부족은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직업교육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2011년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실태 조사(노선욱 외, 2011)에 따르면 특수학교(급) 학부모의 진로·직업교육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학부모 응답자(21,530명) 중

55.5% 그리고 특수학급 학부모 응답자(43,167명) 중 55.2%가 보통,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관련된 직업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특수교사, 및 관리자 등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적 대안들을 마련하고(김정희, 김미경, 2007), 이를 통해 높은 질의 직업교육을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직업교육에 있어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특수학교 고등부와는 달리 몇 가지 독특한 제한점들을 가지는데 이를 논하여 보면 첫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가진다. 말하자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일반계고 및 특성화고)는 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주된 구성원인 비장애 학생들만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소수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요구가 충분히 만족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 및 기자재를 확보함에 있어 행·재정적 제한을 가진다.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양질의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공간 및 기자재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이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한정된 학교의 행·재정적 자원을 소수의 특수학급 학생들만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닐 것이다. 셋째, 현재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1-3학급의 소규모 구성으로 인적 자원의 제한을 가진다.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그리고 전문화 되어진 인적 자원들이 필요하나 현재는 소수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에 의해 주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수의 인적 자원들이 다양한 직업교육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들을 갖추고 학생들을 훈련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제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지난 2년 간(2011~2012) 시범적으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을 위한 거점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구지역(서부공업고등학교, 2012)에서는 이 기간 동안 특수학급이 설치된 1개 고등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실을 설치하여 훈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직업 훈련 관련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거점학교 운영에 있어서 대구 시내 11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약 300명이 거점학교를 순환적으로 방문하여 공예, 청소용역, 조립·포장·분류, 서비스 교육, 세탁 훈련, 조리, 우편 분류, 택배포장, 바리스타 등의 모의 직장 체험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연수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하였으며, 또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관 연계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장애학생 취업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교사 간 협의, 협력 교수 및 연구회 등

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상호교류협정 체결과 복지일자리 협의체 구성과 같은 관련 기관, 사업체,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실제적 직업교육에 힘을 쏟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을 위한 거점학교 운영에 관한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및 관리자 등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거점학교와 같은 형태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실제적 직업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및 관리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거점학교 운영과 같은 형태의 직업교육이 가지는 의미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직업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 둘째,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외부 기관 연계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 셋째,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 넷째,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관련된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한 응답자 및 응답 집단 간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는 대구지역 고등학교(일반계고·특성화고)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 지정 직업교육 거점학교 실습에 참여한 장애학생의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및 관리자로, 학부모 88명, 특수학급 교사 27명 및 관리자 20명 총 135명이 설문에 참여 하였다. 연구 대상의 배경변인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배경변인별 구성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학부모	성 별	남	59	67.0
		여	29	33.0
	학교급	일반계고(인문계고)	78	88.6
		특성화고(전문계고)	10	11.4
	합 계	88	100.0	
특수 학급 교사	성 별	남	7	25.9
		여	20	74.1
	학교급	일반계고(인문계고)	24	88.9
		특성화고(전문계고)	3	11.1
	합 계	27	100.0	
관리자	성 별	남	17	85.0
		여	3	15.0
	학교급	일반계고(인문계고)	17	85.0
		특성화고(전문계고)	3	15.0
	합 계	20	100.0	
전 체	성 별	남	83	61.5
		여	52	38.5
	학교급	일반계고(인문계고)	119	88.2
		특성화고(전문계고)	16	11.8
	합 계	135	100.0	

2. 연구 도구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 유형에 있어서는 양자 택일형, 선다형, 개방형, 평정 척도형이었으며, 양자 택일형 및 평정 척도형 경우 연구 대상 전원에게 질문 되었으나 선다형 및 개방형의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 따라 질문되지거나 생략되었다. 설문지의 요인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조사: 구분, 성별, 학교급
- (2) 직업체험교실 운영 효과에 관한 인식: 직업교육 참여 촉진, 직업적응 능력 향상, 직업교육 동기 부여, 활용 자료 일반화, 운영 만족 정도, 참여 간 불편 요소, 운영상 개선 요소, 거점학교 운영의 필요
- (3)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 효과에 관한 인식: 진로 설정과 전환 효과, 지역 여건 개선, 현장실습의 어려운 점, 지역사회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고용 훈련 효과, 현장실습 외부기관
- (4) 협력체계 구축 촉진에 관한 인식: 교사 간 협력 활성화,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사·학부모 연수 및 견학, 외부기관 연계 체제 구축 효과, 일자리 창출 협의체 효과

2) 설문지 요인 분석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에서 거점학교 운영 인식에 관한 15개 설문 문항(평정척도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고유 값, 설명 분산, 누적 분산, 요인 적재량 및 공통성과 더불어 각 항목 별로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요인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번호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공통성
직업체험 교실 운영 효과	5	직업교육 참여 촉진	.800		.694
	6	직업적응 능력 향상	.776		.625
	7	직업교육 동기 부여	.758		.690
	10	거점학교 운영의 필요	.728		.592
	8	활용 자료 일반화	.708		.628
	9	운영 만족 정도	.689		.628
	11	진로 설정과 전환 효과*	.531	.192	.564
협력체계 구축 촉진	19	일자리 창출 협의체 효과	.169	.887	.841
	18	외부기관 연계 체제 구축 효과		.823	.773
	17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사· 학부모 연수 및 견학	.780		.711
	16	교사 간 협력 활성화	.732	.285	.673

<표 2> 요인 분석 결과 (계속)

요인	문항 번호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공통성
외부기관 연계 현장 실습 효과	14	지원 고용 훈련 효과	.089	.843	.722	
	12	지역 여건 개선		.667	.618	
	13	지역사회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625	.679	
	15	현장실습과 취업지원 희망		.445	.286	
고유 값			3.978	3.247	2.502	
설명 분산			26.518	21.646	16.682	
누적 분산			26.518	48.164	64.846	
문항 수	15		6	4	4	

* 제거 문항

요인적재량이 0.40 이하인 항목이 없었으나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 효과’ 요인 아래에 적재된 ‘진로 설정과 전환 효과’ 문항의 경우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재가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거하였다. 이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3개의 요인 아래 적재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직업체험교실 운영 효과’ 요인에는 모두 6개 항목이 적재되었고, ‘협력체계 구축 촉진’ 요인과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 효과’ 요인에는 각각 4개 항목씩이 적재되었다.

3) 설문지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실시 후 남은 14개의 설문 항목에 대해 문항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α 값, Cronbach's α 값과 더불어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신뢰도 분석 결과

요 인	문항 번호	측정문항	문항전체 상 관관계	문항 제거 시 α 값	Cronbach's α 값
직업체험교실 운영 효과	5	직업교육 참여 촉진	.729	.864	.885
	6	직업적응 능력 향상	.664	.870	
	7	직업교육 동기 부여	.734	.861	
	10	거점학교 운영의 필요	.706	.865	
	8	활용 자료 일반화	.700	.866	
	9	운영 만족 정도	.612	.877	
협력체계 구축 촉진	19	일자리 창출 협의체 효과	.709	.876	.889
	18	외부기관 연계 체계 구축 효과	.739	.864	
	17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사·학부모 연수 및 견학	.778	.850	
	16	교사 간 협력 활성화	.810	.836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효과	14	지원 고용 훈련 효과	.617	.622	.737
	12	지역 여건 개선	.655	.596	
	13	지역사회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538	.672	
	15	현장실습과 취업지원 희망*	.321	.778	
합 계	14				

* 제거 문항

세 요인 모두 Cronbach's α 값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 효과' 요인 아래에 있는 '현장실습과 취업지원 희망' 문항의 경우 문항 제거 시 알파 값이 해당 요인 Cronbach's α 값 보다 높게 나와 제거하였다.

4) 최종 설문지 구성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후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표 4>과 같다.

<표 4> 거점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 최종 설문지 구성

영역	문항 번호	내 용	질문형식
기초 조사	1	구 분	양자택일형
	2	성 별	
	3	학교 계열	
직업체험 교실 운영 효과	4	직업교육 참여 촉진	평정척도형 선다형 개방형
	5	직업적응 능력 향상	
	6	직업교육 동기 부여	
	7	활용 자료 일반화	
	8	운영 만족 정도	
	8-1	직업체험교실 실습 참여 간 불편 요소*	
	8-3	직업체험교실 운영 상 개선 요소*	
9	거점학교 운영의 필요		
외부기관 연계 현장 실습 효과	10	지역 여건 개선	평정척도형 선다형 개방형
	10-2	현장실습과 일자리 창출의 어려운 점	
	11	지역사회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12	지원 고용 훈련 효과	
	12-2	연계 현장실습 외부기관*	
협력체계 구축 촉진	13	교사 간 협력 활성화	평정척도형
	14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사·학부모 연수 및 견학	
	15	외부기관 연계 체제 구축 효과	
	16	일자리 창출 협의체 효과	
합 계	19		

* 학부모 및 특수학급 교사에게만 질문되어진 문항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일반계고·특성화계고) 중 1개교를 거점학교로 선정 후 해당학교에 직업체험교실을 설치하고 직업교육을 실시 한 후 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특수학급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및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출력 후 거점학교 담당 교사가 개별 적 혹은 학교 간 우편시스템을 통해 거점학교 참여 특수학급 교사에 전달 후 특수교

사가 본인, 관리자 및 해당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후 설문지는 학교 간 우편시스템을 통해 수거하였다.

4. 자료 처리

설문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설문 문항에 대한 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평정 척도 문항의 경우 각 문항 별로 일원배치 분석분석(ANOV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다중응답 문항의 경우 이분법으로 코딩을 실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수 및 응답자 비율로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응답자 혹은 응답 집단 간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t* 분석과 일원배치 분석분석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III. 결 과

1. 거점학교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 효과에 관한 인식

해당 요인에서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직업교육에 있어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 체험교실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첫 번째로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이 학생들의 직업교육 참여를 촉진하였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직업교육 참여 촉진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22	0.56	.556	
	특성화고	119	4.19	0.66		
성별	남	83	4.22	0.56	.053	
	여	52	4.19	0.66		
집단별	학부모(a)	88	4.10	0.57	4.174*	-
	특수학급 교사(b)	27	4.37	0.69		
	관리자(c)	20	4.45	0.51		
전 체		135	4.21	0.60		

**p*<.05

3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1호)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21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이 학생들의 직업교육 참여 촉진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설립별($p=.457$) 및 성별($p=.818$)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별($p=.017^*$)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집단에 따른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관리자($M=4.45$), 특수학급 교사($M=4.37$), 학부모($M=4.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해서 어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집단들의 평균을 통해 관리자 집단이 학부모 집단보다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직업체험교실에서 운영한 모의 직장체험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직업태도와 직장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직업 적응 능력 향상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38	0.81	1.762	
	특성화고	119	4.13	0.66		
성별	남	83	4.14	0.68	.155	
	여	52	4.19	0.69		
집단별	학부모(a)	88	4.06	0.70	3.937*	c > a
	특수학급 교사(b)	27	4.26	0.66		
	관리자(c)	20	4.50	0.51		
전 체		135	4.16	0.68		

* $p < .05$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16로 응답자들은 직업체험교실에서 운영한 모의 직장체험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직업태도와 직장적응능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설립별($p=.187$) 및 성별($p=.694$)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별($p=.022^*$)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집단에 따른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관리자($M=4.50$), 특수학급 교사($M=4.26$), 학부모($M=4.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관리자 집단이 학부모 집단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이 학생들의 직업교육 관련 동기 부여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직업교육 동기 부여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38	0.72	.157	
	특성화고	119	4.30	0.66		
성별	남	83	4.30	0.71	.045	
	여	52	4.33	0.65		
집단별	학부모(a)	88	4.20	0.65	3.216*	-
	특수학급 교사(b)	27	4.48	0.70		
	관리자(c)	20	4.55	0.76		
전 체		135	4.31	0.69		

* $p < .05$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31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이 학생들의 직업교육 관련 동기 부여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설립별($p=.693$) 및 성별($p=.833$)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별($p=.043$)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집단에 따른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관리자($M=4.55$), 특수학급 교사($M=4.48$), 학부모($M=4.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해서도 어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평균을 통해 관리자 집단이 학부모 집단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이 활용 자료 일반화에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활용 자료 일반화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31	0.60	.900	
	특성화고	119	4.14	0.68		
성별	남	83	4.12	0.63	.862	
	여	52	4.23	0.73		
집단별	학부모(a)	88	4.03	0.67	5.989**	b > a
	특수학급 교사(b)	27	4.52	0.64		
	관리자(c)	20	4.25	0.55		
전 체		135	4.16	0.67		

** $p < .01$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16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이 활용 자료 일반화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설립별($p=.345$) 및 성별($p=.335$)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별($p=.003^*$)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집단에 따른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교사($M=4.52$), 관리자($M=4.25$), 학부모($M=4.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특수학급 교사 집단이 학부모 집단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전반적인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의 만족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직업체험교실 운영 만족 정도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31	0.60	1.638	
	특성화고	119	4.07	0.73		
성별	남	83	4.10	0.71	.000	
	여	52	4.10	0.75		
집단별	학부모(a)	88	3.93	0.72	7.617**	b > a
	특수학급 교사(b)	27	4.48	0.64		
	관리자(c)	20	4.30	0.57		
전 체		135	4.10	0.72		

** $p < .01$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10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설립별($p=.203$) 및 성별($p=.999$)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별($p=.001^*$)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집단에 따른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교사($M=4.48$), 관리자($M=4.30$), 학부모($M=3.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특수학급 교사 집단이 학부모 집단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거점학교에서 운영된 직업체험교실 실습 참여를 위한 방문에 있어 불편한 요소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직업체험교실 실습 참여를 위한 거점학교 방문 간 불편 요소(중복 응답)

응답 내용	빈도수(명)	응답자 비율(%)
이동의 불편	38	33.0
협소한 실습 장소	8	7.0
급식(중식)	10	8.7
학교장 지원	7	6.1
불편 없음	52	45.2
합 계	115	100.0

직업체험교실 실습 참여를 위한 거점학교 방문 간 불편 요소에 관한 질문은 질문의 특성상 교사 및 학부모에게만 설문되어졌으며 중복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있어 52명(45.2%)가 ‘불편 없음’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38명(33.0%)가 ‘이동의 불편’ 이 불편 요소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0명(8.7%)가 ‘급식(중식)’, 8명(7.0%)가 ‘협소한 실습 장소’, 그리고 7명(6.1%)가 ‘학교장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은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참여 간 불편한 요소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11>와 같다.

<표 11> 직업체험교실 운영 상 개선 요소(중복 응답)

응답 척도	빈도수(명)	응답자 비율(%)
홍 보	15	12.7
훈련 직종 다양화	55	46.6
거점학교 인력 확충	28	23.7
교재·교구 확충	4	3.4
불편 없음	16	16
합 계	118	102.4

직업체험교실 운영 상 개선 요소에 관한 질문은 질문의 특성상 교사 및 학부모에게만 설문되어졌으며 중복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있어 55명(46.6%)가 ‘훈련 직종 다양화’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28명(23.7%)가 ‘거점학교 인력 확충’, 15명(12.7%)가 ‘홍보’, 그리고, 4명(3.4%)가

‘교재·교구 확충’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16명(16.0%)가 ‘불편 없음’ 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직업체험교실의 지속적 운영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38	0.50	.006	
	특성화고	119	4.36	0.70		
성별	남	83	4.37	0.68	.052	
	여	52	4.35	0.68		
집단별	학부모(a)	88	4.23	0.71	5.629**	b > a
	특수학급 교사(b)	27	4.67	0.55		
	관리자(c)	20	4.55	0.51		
전 체		135	4.36	0.68		

** $p < .01$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36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의 지속적 운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설립별($p=.940$) 및 성별($p=.820$)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별($p=.005^*$)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집단에 따른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교사($M=4.67$), 관리자($M=4.55$), 학부모($M=4.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특수학급 교사 집단이 학부모 집단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 효과에 관한 인식

해당 요인에서는 거점학교 통한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첫 번째로 거점학교 운영이 장애학생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우리 지역 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13>와 같다.

<표 13> 지역 여건 개선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13	0.89	4.138*	
	특성화고	119	3.70	0.78		
성별	남	83	3.86	0.75	3.975*	
	여	52	3.58	0.85		
집단별	학부모(a)	88	3.69	0.82	.876	
	특수학급 교사(b)	27	3.93	0.73		
	관리자(c)	20	3.75	0.79		
전 체		135	3.75	0.80		

* $p < .05$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3.75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 운영이 장애학생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우리 지역 여건 개선에 다소간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전의 문항들과는 달리 이 문항에서는 설립별($p=.044^*$) 및 성별($p=.048^*$)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 응답자들($M=3.70$)에 비해 일반계고 응답자들($M=4.13$)이 직업체험교실의 지속적 운영을 더 희망했고 또 여자 응답자들($M=3.58$)에 비해 남자 응답자들($M=3.86$)이 직업체험교실의 지속적 운영을 더 희망했다. 반면 집단별($p=.876$)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어려운 점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현장실습과 일자리 창출의 어려운 점(중복 응답)

응답 내용	빈도수(명)	응답자 비율(%)
행정적 지원(교육청 등)	55	39.9
업무 과중	15	10.9
학부모 인식	10	7.2
학교장 인식	6	4.3
산업체 인식	52	37.7
합 계	138	100.0

4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1호)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현장실습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운 점에 관한 질문은 질문의 특성상 교사, 관리자 및 학부모 모두에게 설문되어졌으며 중복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있어 55명(39.9%)가 ‘행정적 지원(교육청 등)’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52명(37.7%)가 ‘산업체 인식’, 15명(10.9%)가 ‘업무 과중’, 10명(7.2%)가 학부모 인식, 그리고, 6명(4.3%)가 ‘학교장 인식’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추진된 현장실습이 지역사회 중심 현장실습에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그 대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지역사회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31	0.70	2.939	
	특성화고	119	3.96	0.79		
성별	남	83	4.07	0.71	1.852	
	여	52	3.88	0.88		
집단별	학부모(a)	88	3.88	0.83	3.376*	-
	특수학급 교사(b)	27	4.26	0.71		
	관리자(c)	20	4.20	0.52		
전 체		135	4.00	0.78		

* $p < .05$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00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추진된 현장실습이 지역사회 중심 현장실습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설립별($p=.089$) 및 성별($p=.176$)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별($p=.037^*$)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집단에 따른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교사($M=4.26$), 관리자($M=4.20$), 학부모($M=3.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해서 어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집단들의 평균을 통해 특수학급 교사 집단이 학부모 집단보다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추진된 지원 고용 훈련이 진로 전환에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16>와 같다.

<표 16> 지원 고용 훈련 효과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36	0.62	3.216	
	특성화고	119	4.05	0.69		
성별	남	83	4.12	0.65	.456	
	여	52	4.04	0.74		
집단별	학부모(a)	88	4.02	0.71	1.666	
	특수학급 교사(b)	27	4.30	0.54		
	관리자(c)	20	4.10	0.72		
전 체		135	4.09	0.69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09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추진된 지원 고용 훈련이 진로 전환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설립별($p=.714$), 성별($p=.501$) 및 집단별($p=.193$)의 모든 변인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응답자 변인에 상관없이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추진된 지원 고용 훈련이 진로 전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생(자녀)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을 위해 연계하고 있는 외부기관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17>와 같다.

<표 17> 연계 현장실습 외부기관(중복 응답)

응답 내용	빈도수(명)	응답자 비율(%)
복지관	54	43.2
장애인 고용공단	11	8.8
사업체	11	8.8
없 음	41	32.8
기 타	8	6.4
합 계	125	100.0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을 위해 연계하고 있는 외부기관에 관한 질문은 질문의 특성상 교사 및 학부모에게만 설문되어졌으며 중복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질

문에 있어 54명(43.2%)가 ‘복지관’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41명(32.8%)은 ‘없음’, 11명(8.8%)가 ‘장애인 고용공단’, 11명(8.8%)가 ‘사업체’, 그리고, 8명(6.4%)가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3. 협력체계 구축 촉진에 관한 인식

해당 요인에서는 거점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첫 번째로 거점학교를 통해 운영된 진로직업교육 연구회는 교사 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18>와 같다.

<표 18> 교사 간 협력 활성화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19	0.40	.005	
	특성화고	119	4.18	0.62		
성별	남	83	4.18	0.59	.005	
	여	52	4.17	0.62		
집단별	학부모(a)	88	4.09	0.60	2.833	
	특수학급 교사(b)	27	4.37	0.63		
	관리자(c)	20	4.30	0.47		
전 체		135	4.18	0.60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18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를 통해 운영된 진로 직업교육 연구회는 교사 간 협력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설립별($p=.945$), 성별($p=.943$) 및 집단별($p=.062$)의 모든 변인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응답자 변인에 상관없이 거점학교를 통해 운영된 진로직업교육 연구회는 교사 간 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거점학교를 통해 실시된 교사·학부모 연수 및 견학이 직업교육 관련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교사·학부모 연수 및 견학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31	0.48	1.983	
	특성화고	119	4.07	0.67		
성별	남	83	4.16	0.63	1.831	
	여	52	4.00	0.69		
집단별	학부모(a)	88	4.08	0.71	.101	
	특수학급 교사(b)	27	4.11	0.64		
	관리자(c)	20	4.15	0.37		
전 체		135	4.10	0.66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10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를 통해 실시된 교사·학부모 연수 및 견학이 직업교육 관련 인식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설립별($p=.161$), 성별($p=.178$) 및 집단별($p=.904$)의 모든 변인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응답자 변인에 상관없이 거점학교를 통해 실시된 교사·학부모 연수 및 견학이 직업교육 관련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거점학교 운영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 체제 구축이 인근 학교에 대한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에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20>와 같다.

<표 20> 외부기관 연계 체제 구축 효과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37	0.72	1.248	
	특성화고	119	4.16	0.73		
성별	남	83	4.21	0.64	.157	
	여	52	4.15	0.85		
집단별	학부모(a)	88	4.13	0.80	1.193	
	특수학급 교사(b)	27	4.37	0.57		
	관리자(c)	20	4.20	0.52		
전 체		135	4.19	0.73		

4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1호)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19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 운영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 체제 구축이 인근 학교에 대한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설립별($p=.161$), 성별($p=.178$) 및 집단별($p=.904$)의 모든 변인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응답자 변인에 상관없이 거점학교 운영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 체제 구축이 인근 학교에 대한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구성된 일자리 창출 협의체가 향후 현장실습 활성화에 기여할지에 관한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 21>와 같다.

<표 21> 일자리 창출 협의체 효과

구분	응답 척도	N	M	SD	F	Scheffe 사후검증
설립별	일반계고	16	4.19	0.54	.000	
	특성화고	119	4.19	0.70		
성별	남	83	4.18	0.57	.009	
	여	52	4.19	0.84		
집단별	학부모(a)	88	4.09	0.74	5.249**	b > a
	특수학급 교사(b)	27	4.56	0.58		
	관리자(c)	20	4.10	0.31		
전 체		135	4.19	0.68		

이 문항 응답에 대한 평균은 4.19로 응답자들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구성된 일자리 창출 협의체가 향후 현장실습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설립별($p=.989$) 및 성별($p=.924$)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별($p=.006^{**}$)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집단에 따른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교사(M=4.56), 관리자(M=4.10), 학부모(M=4.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특수학급 교사 집단이 학부모 집단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 거점학교를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관련 요인에 관한 인식 비교

거점학교를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관련 3가지 요인인 ‘직업체험교실 효과’, ‘현장실습 및 취업 효과’, ‘협력체제 구축 촉진’에 관한 응답자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2>과 같다.

<표 22> 요인에 따른 성별 간 인식 차이

요인	성별	M	SD	t	p
직업체험교실 효과	남	4.21	.52	-.233	.816
	여	4.23	.55		
현장실습 및 취업 효과	남	4.18	.52	.497	.620
	여	4.13	.66		
협력체제 구축 촉진	남	4.02	.59	1.651	.101
	여	3.83	.68		

분석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체험교실의 효과’ 요인에 대한 남자 응답자의 응답 평균은 4.21, 표준편차는 .52이고 여자 응답자의 응답 평균은 4.23, 표준편차는 .55였고 t 값이 $-.233(p=.816)$ 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체험교실의 효과’ 요인에 대한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실습 및 취업 효과’ 요인에 있어 남자 응답자들의 응답 평균은 4.18, 표준편차는 .52이고 여자 응답자의 응답 평균은 4.13, 표준편차는 .66였고 t 값이 $.497(p=.620)$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실습 및 취업 효과’ 요인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협력체제 구축 촉진’ 요인에 있어 남자 응답자들의 응답 평균은 4.02, 표준편차는 .59이고 여자 응답자의 응답 평균은 3.83, 표준편차는 .68였고 t 값은 $1.651(p=.101)$ 로 나타났는데 이는 ‘협력체제 구축 촉진’ 요인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점학교를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관련 3가지 요인에 대해 응답 집단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요인에 따른 응답 집단 간 인식 차이

요인	응답 집단	M	SD	F	p
직업체험교실 효과	학부모	4.09	.517	7.640	.001**
	특수학급 교사	4.46	.555		
	관리자	4.43	.376		
현장실습 및 취업 효과	학부모	4.10	.630	2.076	.130
	특수학급 교사	4.35	.506		
	관리자	4.19	.333		
협력체제 구축 촉진	학부모	3.86	.666	2.499	.086
	특수학급 교사	4.16	.573		
	관리자	4.02	.465		

**p<.01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체험교실 효과’ 요인에 관한 응답 집단별 인식에 있어 F 값이 7.640(p=.001**)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체험교실 효과’ 요인에 있어 응답 집단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장실습 및 취업 효과’ 요인에 관한 응답 집단별 인식에 있어 F 값이 2.076(p=.130)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실습 및 취업 효과’ 요인에 있어서는 응답 집단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협력체제 구축 촉진’ 요인에 관한 응답 집단별 인식에 있어 F 값이 2.499(p=.086)로 나타났는데 이는 ‘협력체제 구축 촉진’ 요인에 있어서는 응답 집단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일원배치분석을 통해 ‘직업체험교실 효과’ 요인에 대해 응답 집단 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사후비교분석(Scheffe)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4>과 같다.

<표 24> ‘직업체험교실 효과’ 요인에 대한 사후비교분석(Scheffe)

비교 집단	평균차	표준오차	p
학부모와 특수학급 교사	-.37	.11	.005**
특수학급 교사와 관리자	.03	.15	.981
관리자와 학부모	.34	.13	.025*

*p<.05, **p<.01

응답 집단에 따른 ‘직업체험교실 효과’ 요인에 대한 사후비교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부모와 특수학급 교사 간 비교에 있어 평균차는 $-.37(p=.005)$ 이고, 특수학급 교사와 관리자 간 비교에 있어 평균차는 $.03(p=.15)$ 이다. 그리고 관리자와 학부모 간 비교에 있어 평균차는 $.34(p=.13)$ 이다. 이는 학부모와 특수학급 교사 및 관리자와 학부모의 ‘직업체험교실 효과’에 관한 인식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있어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및 관리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와 같은 형태의 직업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색하는 데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거점학교 설치와 이를 통한 직업체험교실 운영에 대해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및 관리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체험교실을 통해 제공 되어지는 다양한 자료와 직업 체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가지게 하고 이렇게 부여된 동기를 바탕으로 직업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여겨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직업 체험들은 직업 관련 태도의 변화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적응 능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직업 체험교실 운영 관련 모든 문항의 인식에 있어 학부모가 특수학급 교사 혹은 관리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수요자, 즉 학생 혹은 학부모 입장에서 더 많은 고려들이 이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체험교실 실습 참여를 위해 거점학교를 방문함에 있어서는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이동의 불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거점학교로의 이동에 대한 것으로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 체험교실 운영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어졌다.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요소로는 ‘훈련 직종의 다양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거점학교를 통하여 이전 보다 많은 직업체험 경험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훈련 직종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거점학교 인력 확충’ 이었는데 이전의 강병호, 이유훈, 김형일(2003)나 정인숙, 김형일, 박재국(2008)의 연구들에서 보고되어진 것 같이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직업교육에서도 여전히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거점학교를 통한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에 관해서도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및 관리자 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인식 수준의 정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거점학교를 통한 실습이 이전과는 달리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직업을 훈련하는 지역사회 중심 현장실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식하였으며 거점학교 운영이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지원에 관련된 여러 여건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거점학교를 통한 지원 고용 훈련에 대해서는 이 훈련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거나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중심 현장실습 활성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학부모의 인식이 특수학급 교사나 관리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더 많은 현장실습 필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들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행정적 지원과 산업체의 인식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여러 연구들에서 장애학생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제안되어진 관계기관 및 사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조규영, 2011)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외부기관에 있어 40%가 넘는 응답자들이 ‘복지관’ 이라고 답한 반면 ‘사업체’ 라고 답한 경우는 10%가 넘지 않는데 이는 앞에서 논해진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어려움 점과 연계하여 논해 보면 여전히 사업체의 인식 변화가 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은 알 수 있다.

셋째, 거점학교를 통한 교사, 학부모 및 외부기관 간의 협의체 구축에 대한 학부모, 교사 및 관리자 등의 인식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집단 간 인식 수준의 정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 간의 협력에 관해 응답자들은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교육이 인근 고등학교 특급학급 교사들의 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진로직업교육연구회의 구성 등을 통한 직업교육 지도 및 직업체험 정보 공유를 통해 박대회, 박재국과 김혜리(2009)의 연구에서 특수학급의 직업교육에 있어 문제로 지적한 직업교육 관련 정보의 부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사와 학부모 연수 및 견학에 관한 인식에 있어 이와 같은 활동들이 직업교육에 관련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 또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관련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단편적으로 예일

것이다. 또한 외부기관 연계 체제 구축이 참여 학교의 현장실습 취업 지원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 내 사업체와 관련 기관으로의 현장실습 및 취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긍정적 인식은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온 관련 기관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정인숙, 김형일, 박재국, 2008)이라는 부분이 다소간 해결되어짐으로 얻어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점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자리 창출 협의체(시청, 교육청,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 협의체가 직업교육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네트워크 구축의 한 일환으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인식이 특수학급 교사나 관리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관련한 3가지 요인들에 대한 응답자 및 응답 집단 간 인식에 있어 응답자의 성별 변인에 따른 통계적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별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응답 집단 간 요인들에 대한 인식 비교에서 ‘현장실습 및 취업 효과’ 및 ‘협력체제 구축 촉진’ 요인들에 있어서는 응답 집단에 따른 통계적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직업체험교실 효과’ 요인에 있어서 응답 집단 간에는 통계적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비교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학급 교사와 관리자(.03)간에는 이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반면 학부모와 특수학급 교사(-.37), 그리고, 학부모와 관리자(-.34) 사이에는 이 요인에 대해 통계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의 직업교육에 대한 학부모 낮은 만족도에 관한 보고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되어 질 수 있는데 직업교육을 위한 거점학교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교육에 대해 특수학급 교사나 관리자들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직업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같은 제한점들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졸업 이 후 구직 혹은 구직 이후 직장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재원, 박병도, 김현중, 2006). 이를 고려 해 볼 때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직업교육의 질이 특수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 언급한 제한점들로 인해 다소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구민관, 2012; 최희섭 외, 2005). 이런 맥락에서 거점학교를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직업교육은 언급한 제한점들을 많은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과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들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정인숙, 김형일과 박재국(2008)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수학급 교사가 전문적인 훈련을 책임지기 보다는 진로·직업 교사, 상담교사, 직업개발자, 직무지도원, 사회 복지사 등과 같은 외부 전문 인력들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직업 훈련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체 및 지역 사회의 인식 전환 및 취업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들이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에 대한 사업체의 인식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취업 현장 여건의 개선, 즉 장애학생의 경우 그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이 시간 동안 장애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원의 배치 등과 같은 배려를 위해 사업체 등과의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의사소통이 필요 할 것이다(정인숙, 김형일, 박재국, 2008).

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들을 위한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있어 직업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들을 확보 및 배치하기 위한 모델 개발 및 적용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있어 외부기관 연계 현장실습 확대를 위한 모델 개발 및 적용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셋째,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있어 교사, 학교, 유관 기관 및 사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적용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1). **특수교육실태조사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통계**.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강병호, 이유훈, 김형일 (2003).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구민관 (201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실태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7(3), 261-281.
- 김정희, 김미경 (2007). 특수학교 직업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초등특수교육연구**, 9(1), 139-158.
- 노선옥, 강영백, 금미숙, 안수경, 이미선, 이영숙, 이정현, 이효자 (2011). **특수교육실태조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대구 서부공업고등학교 (2012).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 방안 모색. 대구광역시 교육청.
- 박대회, 박재국, 김혜리 (2009).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진로교육 실태 및 교사의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1(2), 233-255.
- 박지웅 (2003). 장애인 전환 서비스 실태 분석: 서울, 경기 지역 직업재활 시설 및 전환 교육 담당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윤덕순, 박재국, 안성우, 신영주 (2006).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교육 실태 및 교사의 인식. **정신지체연구**, 18(4), 125-144.
- 이재원, 박병도, 김현중 (2006).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전환 교육의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 **특수교육연구**, 13(1), 265-287.
- 전보성 (2007).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 전환교육 실태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제**, 8(3), 511-531.
- 정인숙, 김형일, 박재국 (2008).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349-366.
- 정희섭, 김현진, 김형일, 정동영, 정인숙 (2005). 특수학교(급) 고등부 졸업생의 진로실태 및 진로 지원체제 구축방안.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조규영 (20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천적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행 방안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4(4), 257-275.
- Blackorby, J., & Wagner, M. (1996). Longitudinal postschool outcomes of youth with disabilities: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 *Exceptional Children*, 62(5), 399-413.
- Drew, C. J., & Hardman, M. L. (2007). *Intellectual disabilities across the lifespan* (9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Carter, E. W., & Lunsford, L. B. (2005). Meaningful work: Improving employment outcomes for transition-age youth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Preventing School Failure*, 49(2), 63-69.
- Mardman, M. J., Drew, C. J., & Egan, W. E. (2007). *Human Exceptionality* (9th ed.). Boston, NY: Houghton Mifflin.

Perception of Paren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Administers on Job-Centered High School for
Teaching Job Skills

: Based on cases in Dae-Gu

Minkowan Goo

Busan Dong-Cheon Elementary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aren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administers on job-centered high school for teaching job skills. Survey was conducted for 88 parents, 27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20 administers, whose sons and daughters or students took part in job training programs offered by the job-centered high school, and then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e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was developed due to the lack of prior literature related to the topic of the study. In order to ascertai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s,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perception of paren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administers on job-centered high school for teaching job skills is affirmative. This type of methods is effective in teaching jobs skills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neral high schools.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transition, special education classroom in high schools, vocational training, jobs, job-centered high school

논문 접수: 2013. 02. 05 심사 시작: 2013. 02. 14 게재 확정: 2013. 03. 25